‘에이스’ 네일 “내년에도 KIA와 동행”

‘1선발 잔류’ KIA, 외국인 선수 새판짜기 돌입

올러 협상도 순항…위즈덤은 결별, 새 외인타자 영입 착수
내부 핵심 FA 협상·아시아쿼터까지, 겨울 수싸움 본격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에이스’ 네일을 다시 품으며 외국인 선수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1선발의 잔류는 남은 겨울 전력 재편에서도 결정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IA 구단은 26일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총액 200만 달러(계약금 20만, 연봉 160만, 옵션 2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네일의 KBO 외국인 선수 ‘200만 달러 클럽’ 가입은 역대 4번째다.

더스틴 니퍼트(210만·2017년 두산), 헥터 노에시(200만 달러·2018년 KIA), 드루 루친스키(200만 달러·2022년 NC 다이노스)에 이어 3년 만에 바통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네일은 KIA와 3년 연속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2024시즌 KBO리그 데뷔 첫해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그해 26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49.1이닝 12승 5패, 평균자책점(ERA) 2.53으로 방어율 왕에 등극했다. 팀에 7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을 안긴 시즌이었다. 한국시리즈에선 2경기 1승, ERA 2.53으로 호투하며 팀 통산 12번째 우승까지 보탰다.

올 시즌에도 제1선발로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27경기 164.1이닝, 8승 4패, ERA 2.25, WHIP 1.07. 팀 전반의 부진 속에 승수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19차례의 QS(퀄리티스타트)를 남기며 팀 마운드를 지탱했다.

올 시즌 WAR(대체 선발 대비 승리기여도) 부문도 전체 3위에 오르며 리그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확인시켰다. 두 시즌 통산 성적은 20승 9패, 290탈삼진, 평균자책점 2.38로 팀 전력의 중심에 있는 특급 스타다.

당초 네일은 메이저리그 일부 구단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탈할 경우 KIA는 단순한 마운드 누수가 아니라 선발 로테이션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내년 시즌 반등을 위해 그의 잔류는 사실상 ‘선결 과제’에 가까웠다.

KIA는 내부 FA 3인방과의 협상이 더딘 상황에서도 외국인 선수 틀을 재정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했다. 협상 지형이 복잡한 만큼 빠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KIA 타이거즈가 에이스 네일과 총액 200만달러에 재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네일은 KIA와 3년 연속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일단 네일을 지키는 데 성공하며 ‘전력의 축’을 사수했다는 평가다. KIA는 핵심 마운드를 유지함으로써 팀 전력 재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남은 내부 FA와 추가 외국인 퍼즐이 맞춰지면 내년 시즌 팀 전력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전망이다.

계약 체결 후 네일은 “좋은 제안을 보내준 KIA 구단에 감사하다. 언제 어디서나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는 타이거즈 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 갈 생각이고, 팀 동료들과 합심해 광주에서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발진 조각도 맞춰지고 있다.

제2선발 아담 올러 역시 잔류를 희망하고 있어 재계약이 유력하다. KIA는 네일에 이어 올러 계약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선발 ‘원투펀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반면 타선에서는 변화가 예고됐다.

올 시즌 35홈런으로 장타력을 보여준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는 결별 수순을 밟는다. 득점권에서의 기복이 뚜렷했고, 팀 내 전략 변화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위즈덤의 보류권을 해지하고 새 외국인 타자 영입 작업에 돌입했다.

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담 올러와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위즈덤은 보류권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조용하던 KIA의 스토브리그가 네일 재계약을 기점으로 방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시선은 내부 FA 협상, 올러 계약, 아시아쿼터, 새 외국인 타자 영입으로 향한다.

/주홍철 기자

KIA ‘박찬호 보상선수’ 홍민규 낙점

“팀의 미래를 위한 선택…향후 선발 투수로 성장 기대”

KIA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와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맺은 박찬호의 이적 보상선수로 투수 홍민규(19)를 지명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우완 투수인 홍민규는 야탑고를 졸업하고 2025년 3라운드 26순위 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했다.

지난 4월4일 사직 롯데전에서 구원 등판해 1이닝 무실점으로 데뷔전을 장식한 홍민규는 2025시즌 20경기에 나서며 33.1이닝 2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59의 최종 성적을 남겼다.

특히 지난 9월 중국에서 열린 2025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3경기에 등판, 9.1이닝 2승 6탈삼진 평균자책점 0을 기록해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다.

KIA 관계자는 “올 시즌 데뷔한 신인선수이지만 지금까지 등판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우수한 제구력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선발 자원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속구의 수직 무브먼트 수치가 리그 평균 이상이며, 체인지업의 완성도도 높아 향후 투수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앞서 KIA는 2차 드래프트에서 투수 이태양(전 한화)과 내야수 이호연(전 kt)을 지명하며 취약한 불펜과 내야 뎁스를 보강했다.

이어 보상선수로 마운드 자원을 택하면서 내년 팀 전력의 조각을 차츰 맞춰가는 모양새다.

KIA 구단은 남은 내부 FA 협상과 아시아쿼터, 외국인 선수 구성을 통해 전반적인 스토브리그 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홍철 기자

박찬호 보상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홍민규 〈두산 베어스 홈페이지 캡처〉

“스코틀랜드, 남아공, 파나마, 아이티, 퀴라소 끼면 최상”

내달 6일 북중미월드컵 본선 조별 리그 추첨…“브라질, 포트3 노르웨이·이집트·알제리, 포트4 이탈리아 묶이면 최악”

‘죽음의 조’가 될까, ‘행운의 조’가 될까.

홍명보호의 16강 진출 시나리오가 곧 윤곽을 드러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명운을 좌우할 본선 조별리그 조 추첨식이 12월6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처음으로 48개국이 경쟁하는 이번 월드컵에서는 16강에 오르기까지 한 단계가 더 늘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지만, 참가국이 확대된 만큼 ‘행운의 조’를 만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16강 진출이 지상과제인 한국은 32강에서 강팀을 바로 만나는 일을 피하려면 조별리그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둘 필요가 있다.

우선 포트2 배정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출발이다. 덕분에 같은 포트에 묶인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등 강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포트1에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등 세계적 강호들이 즐비하고, 포트3의 노르웨이, 이집트, 알제리도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다.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PO) 승자 4팀과 FIFA 대륙 간 PO 승자 2팀이 배정될 포트4에도 언제든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팀들이 포진해 있다.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교적 수월하게 16강행 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포트1의 브라질과 스페인, 엘링 홀란 등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포진해있는 포트3의 노르웨이를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져보면 브라질, 노르웨이, 그리고 UEFA PO를 통해 포트4에 합류할 경우 이탈리아까지 한 조에 묶이는 경우”라고 꼽았다.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은 “포트1에는 어느 하나 쉬운 상대가 없고, 포트3의 노르웨이 또는 개인 기술과 힘, 스피드를 겸비한 이집트·알제리 같은 팀과 한 조가 되면 바로 ‘죽음의 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운의 회로를 돌려 ‘최상의 조 편성’을 노려보자면, 그나마 포트1에 배정받은 개최국 캐나다와 미국, 포트3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코틀랜드 등이 조금이나마 쉬워 보인다는 평가다.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하 해설위원은 “그나마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수월한 상대지만, 월드컵에서 개최국을 만나는 것은 항상 까다로운 일”이라며 “최상의 조를 기대해보자면, 포트3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파나마, 포트4의 퀴라소와 아이티 정도가 좋은 상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5일 열린 도쿄 데플림픽 볼링 혼성4인조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한국선수단. 왼쪽부터 허선실, 박재웅, 이찬미, 김지수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제공〉

광주시장애인볼링협회 김지수 도쿄 데플림픽 볼링 ‘은 1·동 2’

광주장애인볼링협회 김지수(한국전력)가 2025 도쿄 하계 데플림픽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김지수는 25일 도쿄 히가시야마토 그랜드볼에서 열린 볼링 혼성 4인조 경기에서 이찬미(전남장애인볼링협회·한전KPS)·허선실·박재웅과 팀을 이뤄 예선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복병 대만에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지홍, 최홍창, 박선옥, 안효숙으로 팀을 꾸린 한국2팀은 준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결승에 올라 한국 1팀을 제치고 결승에 오른 대만을 제압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수는 앞서 열린 남자 2인조 경기에서 백재웅과 팀을 이뤄 동메달을 수확했고, 박지홍·백재웅·최홍창과 함께 출전한 남자 4인조 경기에서는 은메달을 따냈다.

초등학교 6학년때 처음 볼링을 시작한 김지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비장애인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기량을 꽃피웠다. 그리고 이듬해 첫 출전한 국제대회인 2017 삼순(튀르키예) 데플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던 김지수는 지난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볼링 개인·단체 2관왕에 올랐고, 이번 데플림픽에 출전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입증했다.

김지수의 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이나래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지도자는 “한국전력공사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김지수가 국가대표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었다”며 “데플림픽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온 만큼 앞으로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직선제·모바일 온라인 투표 도입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직선제와 모바일·온라인 투표가 도입된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제9차 이사회를 열어 규정 개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선 체육단체장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체육회장 등 선거 제도 개선안이 의결됐다.

체육회에 따르면 개선안에는 직선제와 모바일·온라인 투표 도입, 후보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올해 4월 선거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관련 논의를 해 온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 의결은 국무회의 방향에 부응하는 후속 조치로,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